

위용 드러낸 외곽시설...여수 신북항 시대 열린다

남해안 최대 규모 4년만에 준공...핵심 계류시설은 내년 완공
파도 힘으로 연주하는 오션오르간 설치 등 새 관광 랜드마크

장장 4년 동안의 공사를 마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이 위용을 드러냈다. <사진> 남해안 최대 규모인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은 총 1.36km 길이로 기존 방파제보다 5m 정도 높게(9.5~13.5m) 시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해운 신북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폐쇄된 여수신항 대체 항만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

총 286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로 외곽시설 1360m와 계류시설 1202m를 건설한다.

특히 신북항 외곽시설에 자연 파도의 힘만으로 대형 오르간을 연주하는 국내 최초 '오션오르간'이 설치돼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인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착공한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이 순항중인 가운데 총 1330억원이 투입된 외곽시설(방파제)이 모두 완공됐다.

여수해수청이 주력 사업으로 중점 추진

여수해수청은 외곽시설 건설공사가 완료된 만큼 진입도로 포장과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 한 후 오는 10월부터 시민·관광객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수출입 관련 주요 관광선·지원 선박들과 해경 부두 등이 포함된 핵심 계류 시설은 오는 2020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자연친화적이며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이미지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인 신북항 외곽시설은 국내 최초 오션 오르간과 전망대, 방파제 상부에 설치한 산책로와 해양을 설명하는 아트 타

일, 경관 조명, 바다 속을 연상시키는 전망대 트리아트 장식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유일의 '오션오르간'은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을 동력으로 파이프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로 음악을 들려준다.

아연 합금 처리로 해풍에 견고한 1~2.5m 크기의 파이프(30개)에서 쏟아져 나오

는 웅장한 소리와 5음계의 연주가 어우러지는 오션오르간 음악은 아름다운 여수바다를 품은 자연의 음악으로 시민·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의 경우 크로아티아 남부 휴양지 '자다르 해변' 오르간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에는 여수 신북항 오션 오르간이 유일하다.

강오수 여수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여수신북항 사업 외곽시설 준공으로 신북항이 수준 높은 서남해안권 항만서비스 지원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의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시민·관광객 등 방문객들이 명품 방파제인 신북항 방파제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오르간 음악과 여수 밤바다, 오동도 등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여수관광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울촌 민속전시관에서
'음식의 격식, 상차림展'
천연염색 무료 체험도

여수시 울촌 민속전시관에서 '음식의 격식, 상차림展'이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상차림'으로 보여주기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시에는 삼신상과 백일상부터 혼례상, 회갑상, 제사상 등의 상차림과 조상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한 상, 반상기 등 유물과 작품 1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선착순 사전 접수를 받아 28일과 내달 26일 상보 천연염색 무료 체험도 진행한다.

전시에는 또 전남도 공예명장 제1호 강병재 명장과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미지 작가의 작품도 선보인다.

여수 울촌면 가장리에 자리잡은 민속 박물관은 반상기와 유기, 농어업구 등 생활민속품과 여산군지, 여수읍지, 조선환어승람(여수군편) 등 향토사자료 500여 점이 소장돼 있고 전통음식과 농경체험으로 도시민의 인기가 높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20일 오림동 테크니션 스쿨에서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 10기 수료식'이 열렸다. <여수시 제공>

산업인력 양성 요람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 95%가 산단 기업 취업...10기 수료식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취업 등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해온 테크니션 스쿨이 95%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위험물·가스·화학분석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산업인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 10기 수료생 49명 중 32명이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에 취업했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료생과 채용 응시를 해 놓은 수료생을 더할 겨우 앞으로 취업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은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민·산·학·관이 합심해 만든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집한 테크니션 스쿨 10기는 50명 정원에 381명이 지원해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수시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성

교육과 현장실무, 영어교육 등을 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위험물·가스·화학분석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산업인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남도의 유관순' 윤형숙 열사 기리는 학술세미나

원팔 잘리고도 독립만세 외쳐
27일 여수시청서 일대기 조명

1919년 3·1운동 당시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원팔이 잘리고도 독립 만세를 외쳤던 윤형숙(1900~1950) 열사 기리는 학술 세미나가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여수문화홀에서 열린다.

광주 수피아여고 2학년때 3·1운동에 참가해 '조선의 혈녀',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린 윤 열사는 여수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여수지역 독립운동가유족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 세미나는 '의혈지사 윤형숙을 기억한다'를 주제로 굴곡진 삶을 살다간 윤 열사의 일대기를 재조명한다.

제1 주제발표에서는 한규무 광주대 교수가 '항일애국열사 윤형숙 관련자료 검토 및 생애와 활동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인덕 청암대 교수, 김병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에 나선다.

제2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욱 광신대 교수가 '일제강점기 호남 기독교 선교와 윤형숙의 항일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이운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윤지홍 여수지역독립운동가유족회 독립유공자발굴위원장이 토론을 벌인다. 개막식에서는 윤 열사의 모교인 광주수



1919년 3월 만세 행렬을 앞장서서 이끌어 '조선의 혈녀(血女)'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광주 수피아여학교 2학년 윤형숙(원팔) 열사와 추모비. <국가보훈처 블로그 캡처>

피아여고 고세영 교장과 김유정 총동창회장이 시 낭송을 한다.

'의혈지사 윤형숙의 생애'를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세미나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윤 열사의 묘소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1900년 9월 화양면 창무리에서 태어난 윤 열사는 친척과 변요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수학했다.

윤 열사는 박애순 교사, 학생들과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준비를 한 뒤 1919년 3월 10일 광주 장날 만세 시위를

결행했다.

윤 열사는 광주교 아래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원팔이 잘리고 오른쪽 눈이 다친 채 체포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

장애를 안고 선교활동을 벌이다 1950년 9월 28일 퇴각하는 인민군에 붙잡힌 윤 열사는 여수 단덕동 과수원에서 손양원 목사 등과 함께 학살당했다.

정부는 2004년 윤 열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노조
건설업 협의회와 임협 타결

여수국가산단단지에서 공장 설비 건설과 정비를 하는 플랜트 건설 노조와 여수산단 건설업 협의회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임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은 하루 6000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조력공과 여성은 4200원이 오른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시부는 일당을 직종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1만55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직종이나 기능별로 임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2000~4000원 인상을 제시해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수산단 건설협의회는 138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며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공장 재정부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에 소속된 노동자는 2000여명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엘로우 시티
Yellow City

장성군
Jangseong

감성으로 노란꽃잔치를 표현하다

전국 문불여백일장

가을, 꽃, 산, 들, 강 이러한 자연들이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최상의 소재가 되는데 우리 장성의 가을노란꽃잔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글쓰기 아주 좋은 여건을 형성해 줍니다. 전국의 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황룡강가에 모여서 글을 쓴다면, 우리 장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10월 5일(토) 10:00
장소 : 황룡강 공설운동장 옆 작은무대(소공연장)

주 제 : 엘로우시티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장성과 관계되는 작품
분 량 : 문문-12행 이상, 산문-원고지 3매 이상
시 상 : 학생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일반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 상금 :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 수 : ws36910@hanmail.net 문 의 : 061-394-5500, 010-3605-3597